

韓國 方言 研究의 한 方向*

李 翊 燮

1. 우리 한국의 방언 연구가 현재 어느 단계에 와 있으며 거기서 當面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앞으로 指向할 方向은 어떤 것인가 하는 이야기의 실마리를 本人은 다음 글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부지런히 그리고 정확히 조사하고, 効率的으로 體系化하고 정밀한 규칙을 세우는 것이 절대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일이 남아 있다고 믿는다. 파악된 體系나 規則들이 意味하는 것은 무엇인가. 혹은 더 높은 次元에서의 認識을 위하여 그것들은 어떤 문제들을 제기하는가. 우리의 學問은 생각에 생각의 끝없는 연속을 요구한다. 方言學이나 音韻論이나 카아드를 정리·배열하는 정도의 손끝 놀이에 自足할 수는 없다. 그것들은 머리의 學問이며 생각하는 學問일 것을 요구한다(金完鎭 1975: 1).

위에서 보면 方言研究에는 세 단계가 있을 수 있는 듯하다. 즉 (1) 조사·정리의 단계 (2) 체계화·규칙화의 단계 (3) 규칙의 해석 단계가 그것이다. 이를 音韻論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方言研究에 있어서도 음운론적 기술은 이제 대립의 확인이라는 기초적인 次元을 지양하고 發話의 음운론적 실현을 지배하는 유기적 질서의 파악에 힘쓰는 단계에 와 있다고 믿거나,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개개의 方言의 現象이 지니는 더 높은 차원에서의 의미를 추구함으로써 方言研究에 一段의 昇華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金完鎭 1975: 6).

이상에서 보면 우리 方言學은 이제 제3단계를 지향하는 단계에 와 있고 또 그것이 方言研究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제1,2단계(아마 특히 제1단계)의 작업은 그 필요성은 절대적이나 별로 ‘머리’와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손끝놀이’인 듯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게도 한다.

本人의 생각으로는 우리는 아직 제3단계의 연구를 서둘 단계에 와 있지 않다. 그것은 이러한 방향의 연구가 불필요하다고 해서가 아니라 그 이전에 해야 할 제1, 2 단계의 일들이 어느 하나 제 3단계에 올라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제3단계의 작업이 반드시 제1, 2단계의 일이 끝난 다음에야 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일찍부터 제3단계를 지향함으로써 제1, 2단계의 작업도 그만큼 높은 안목에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제3단계의 성급한 추구, 즉 그러한 高次元 세계의 지향은 자칫 제1, 2단계의 작업, 本人의 생각으로는 方言研究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며 핵심적이며 그만큼 무엇보다 중

* 이 글은 1978년 10월 28일 제12회 語學研究會(서울대 語學研究所 주최)에서 ‘한국 方言學의 方法과 展望’이란 제목으로 발표하려던 것을, 當時 公교롭게도 발표회 직전에 급작스러운 사정이 생겨 口頭로 발표하지 못하고 이제 그 제목과 내용을 약간 손질한 것이다. 애초 討論의 애깃거리를 마련하려는 글이었기 때문에 주로 討論 參加者의 論文에서 話題를 이끌어내려 하였었다. 글이 지나치게 애깃거리 爲主로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앞선다.

요한 작업을 끝내 뒷진으로 밀어 놓게 할 우려도 없지 않다.

이러한 우려가杞憂만이 아닌 현상이 실제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다. “構造方言學이란 가능한가?”라는 논문(Weinreich 1954)에 쓸렸던 관심을 그 한 例로 들 수 있다. 필독의 논문이지만 문제는 이 논문 하나로 그야말로 方言 研究를 ‘끝내 준다’고, 그럴 수 있다고 믿는 것인지, 그 이전에 참고하여야 할 많은 古典에는 아예 눈길조차 돌리려 하지 않는 데 있다. “生成方言學은 가능한가?”라는 논문이 나오면 또 마찬가지로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차근차근히 무엇부터 다져 가야 할 것인지, 우리에게 당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를 直視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2. 정확하게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그것을 체계화하는 일은 方言 研究의 基本이요 核心일 뿐만 아니라 거의 全部라고 하여도 좋을지 모른다. 그만큼 그것만으로도 벅차고 힘든 일이요 또 보람된 일이다. 특히 資料 수집의 일이 그러하다. 결코

현재 方言 研究의 상황이 資料 제시나 하고 있을 단계가 아님은 숙지하고 있는 바이지만 이런 작업은 일단 누군가가 해야 한다는 조그마한 자위심을 가지고 정리를 해 보았다(田光鉉 1977: 179).

처럼 자신없어 할 일이 아니요, 오히려 큰 긍지를 가지고 할 일이다. 제3단계의 解釋은 나중 다른 사람에 의해 수정될 수도 있고 또 폐기될 수도 있다. 이에 비하여 정확한 資料의 수집·정리는 오래오래 남들이 이용할 훨씬 값진 사업임에 틀림없다.

우리는 아직 만족할 만한 方言 資料集을 가져 본 일이 없다. 이것이 1940년대의 한국 方言의 참모습이다, 이것이 1970년대의 한국 方言의 참모습이다라고 증언해 줄 方言 資料集들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다. 本人은 이러한 資料集의 편집, 그것을 위한 方言 資料의 수집이 우리에게 부과된 가장 시급한 과제를 맡아 의심치 않는다. 이 일을 해 놓지 않고서는 세계를 향해 한국 方言 研究가 이러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외칠 거리도 없고, 또 후손들에게 훌륭한 유산을 남기노라는 소리도 할 것이 없다. 資料의 수집·정리의 수준이 곧 그 나라, 그 時代 方言 研究의 수준을 재는 척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本人은 하고 있다. 그리고 方言 資料 수집의 肝要性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도 바로 인식되어야 할 줄로 안다.

방언 연구는 오늘날 젊은 국어학자들에게 부과된 가장 긴급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이 나라의 전통적인 방언은 이제 소멸의 前夜에 있기 때문이다(李基文 1972: 167).

3. 정확한 자료 수집을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조사 방법의 밑받침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調査 方法論’에 초점을 두고 보면 우리 方言學界는 가끔 황무지를 연상시킨다. 그 많은 方言 關係 論著에서 조사 방법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은 예는 극히 드물다. 그리고 그 論著들의 方言 資料가 어떠한 조사방법에 의거하여 수집되었다는 정보조차 거의 제시되지 않는다.

가령 社會學者가 “한국 농민의 결혼관”과 같은 논문을 발표하면서 그 자료의 수집 방법을 밝히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어느 지역에서, 어떤 연령을 대상으로, 어떠한 추출방법으로’ 등등의 자료수집의 방법을 거의 필수적으로 밝혀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많은 方言 報告書가 이 기본적인 격식을 갖추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이해 하지도 않는다. 때로 우리 方言學의 세 시대를 연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는 李崇寧(1957), 즉 「濟州島 方言의 형태론적 연구」에도 그 자료들이 언제 어디서 누구를 提報者로 하여 수집되었는지 등에 관

해 전혀 언급이 없는데, 方言 報告書로서의 이 기초적인 결함을 누구도 문제삼으려 하지 않아 왔던 것 같다.

근래에 오면서 조사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조금씩 일기 시작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方言의 音韻 현상을 통신조사로 한 것에 대한 방법론상의 문젯점이 제기된 일은 보기 드문 한 소득이었다.¹ 그러나 이 일에 대한 일반의 관심은 꽤 냉랭했던 것 같다. 통신조사의 성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있어 앞으로 이러한 방법을 채택할지 안 할지의 길잡이가 되게 하여야 할 것이다. 金英培(1977)는 피난민, 즉 다른 方言圈에 가 상주하는 사람들을 제보자로 하였을 때의 문젯점도 제기한 셈이나 이에 대한 논의도 앞으로 좀더 정밀히 될 것이 기대된다. 한편,

이 方言은 필자 자신의 方言이기 때문에 조사방법에 대하여는 따로 기술하지 않는다(崔明玉 1974:7).

은 고향 方言의 조사방법에 대한 문젯점을 제기시켜 준다. 만일 ‘필자 자신의 方言’이 자기 개인의 方言이라면 대학 생활 이후를 꺼지에 나와 고등 교육을 받은 자신으로 하여금 고향 方言을 대표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자기 고향의 方言이더라도 그 方言을 다 기억하고 있기는 어렵기 때문에 거기는 거기대로의 方法論이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남들은 方言 調査 時 녹음기를 쓸 것인가 아닌가, 마이크는 제보자의 입에서 얼마의 거리에 둘 것인가, 20~25cm 거리에 두는 것이 제일 좋다, 8인치쯤 앞 4~6인치쯤 아래에 두는 것이 제일 좋다, 그러면 제보자가 마이크를 너무 의식하기 때문에 말투가 硬塞해지고, 때로는 연설조가 되기도 하여 나쁘다 등을 가지고도 씨름을 한다(Van Riper 1972: 182-3). 어떻게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보다 정확하게 方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단한 씨름인 것이다. 우리는 남들의 부단한 연구의 결과를 배워 오는 일에도 열의가 적었고 스스로 시험하고 추구하는 일에도 게을렀다. 이는 國語學의 다른 분야에서의 활발한 움직임과 進展에 비하여서도 꽤 대조적이었다 할 만하다.

어떤 調査項目들을 조사할 것인지 (막연히 ‘音韻 語彙 文法에 관한 것을 고루고루’ 식의 기준은 기실 기준이라기도 어렵다), 어떤 조사지점을 택할 것인지, 현지조사자의 資質은 어떠한지, 어느 轉寫法을 택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점은 무엇인지, 통신조사의 효용은 어떠한 것인지, 제보자를 60歲 이상으로 한다면 그 명분이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인지 등 좀더 치밀하게 따져져야 할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本人은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문제를 그나마 많이 다루어 보려 한 편이다(李翊燮 1970, 1976, 1979). 그러나 그 어느 하나 치밀한 것이 없다.

치밀한 조사 방법이 밑받침되지 않고서는 정확하고 충분한 자료 수집은 기대하기 어렵고, 정확하고 충분한 자료가 수집되어 있지 않고서는 그 나라 方言研究가 제 궤도에 올라섰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점에서 조사 방법에 대한 그동안의 무관심은 바로 우리 方言學의 落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本人은 믿는다. 어물어물, 方法 이전의 방법으로 方言 資料들을 모으는 일이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方言 자료 수집의 긴요성에 대한

¹ 金永松(1963)과 金亨奎(1964) 間의 論戰을 참조할 것. 金英培(1977)에서도 方言의 音韻 현상을, 비록 그 자료의 일부이지만 역시 통신조사로 하고 있다.

올바른 인식, 조사 방법의 개발을 위한 부단한 추구, 이것이 우리가 무엇보다 서둘러 해야 할 일임을 여기서 다시 강조해 두고 싶다.

4. 方言 研究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記述的 연구와 比較的 연구가 그것이다. 전자는 어느 한 方言의 言語 構造를 개별적인 입장에서 캐는 연구로서, 그동안 方言의 聲調 體系를 다룬 논문이 대개 이 예에 속한다. 후자는 方言간의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로서, 여기에는 다시 시대적으로 다른 두 方言, 즉 동일 지역 언어의 서로 다른 시기의 모습을 비교하는 연구와, 동일 시대의 두(혹은 그 이상의) 다른 지역의 方言을 비교하는 연구가 있다(McIntosh 1961: 12-19). 이 중 方言 研究의 가장 主流를 이루는 연구는 동일 시대의 다른 지역간의 비교 연구, 이른바 言語地理學, 또는 方言地理學일 것이다.

이 자리에서 지적되어야 할 일의 하나는, 우리의 方言研究가 이 言語地理學의인 방면으로 부진했다는, 그러면서도 그 방면으로의 연구가 촉구되는 일이 드물었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小倉進平이나 河野六郎에서는 컸던 方言 境界에 대한 관심이 그 후로는 아주 미미하여져서 全國 方言 區劃論 등은 아예 논의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였다. 있었다면 경상북도내의 方言 구획, 경상남도 내의 方言 구획, 전남·경남 方言의 경계, 또는 전라도 동북부와 동해안 몇 지역의 方言 구획 등 제한된 지역 안에서의 方言 구획 작업이었고(千時權 1965, 李基白 1969, 金永泰 1975, 徐州烈 1964, 李翊燮 1970, 1976, 李秉根 1973) 그나마도 주목밖에 없었다. 都是 전체적으로 方言이 言語地理學의인 비교를 前提로 연구되는 일이 드물었다.

많은 記述的 연구는 言語地理學의인 비교를 전제로 하지 않은 것이었던 것 같다. 聲調研究를 예로 들더라도 어느 한 지점의 聲調 體系를 그 이웃 方言의 그것과 비교하려 했던 시도는 별로 없었던 것 같다(비교적 연구라면 오히려 史的인 입장에 서서, 聲調만 하여도 中世國語의 그것과 비교하려는 입장이었다).² 方言을 하나의 分化體로서보다 獨立體로서 다루려는 것이 이들 기술적 연구의 공통 특징이었다고 보아 좋을 것이다.

이러한 기술적 연구의 특징은, 그 연구들이 方言學者가 아닌 사람들에 의해 수행되었던 일과 관련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國語史를 전공하는 학자가, 音韻論을 전공하는 학자가, 그 분야의 보조자료를 구하기 위하여 方言을 다루던 일이 우리 方言 研究의 성격을 결정짓는 데에 큰 영향을 끼쳤던 것 같다. 기이하게 들릴지 모르나 우리 방언학계에는 순수한 方言學者, 方言만을 전공으로 삼는 학자가 거의 없었다. 方言 研究가 國語史나 音韻論의 보조役의 영역을 못 벗어나는 것도, 言語地理學의 不況도, 記述的 연구의 偏重도 모두 이 순수 전공자의 不在에 말미암는 것이 아닌가 한다.

순수히 方言을 전공하는 사람이라면 ‘方言 研究, 곧 比較’라는 입장에 서기가 쉽상이다. 方言이란 어떤 言語의 分化體다. 그것은 나머지 分化體의 존재 때문에 方言이며 그 때문에 方言學이 성립된다. 나머지 分化體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方言은 言語와 다를 바가 없고 이 점에서 비교를 전제로 하지 않은 한 方言의 분석은 반드시 方言學의 테두리에 든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하와이 섬에서 쓰이는 한 方言을 기술적으로 분석하여 그 섬의 言語를 세계에 처음으로 소개한 학자가 있다고 하자. 언뜻 方言學을 전공으로 하는 학자라고

² 이 점에서 Ramsey(1974)에서의 한경도 聲調와 경상도 聲調의 比較는 注目を 要한다고 할 수 있다.

하기 어렵다. ‘현대 서울말의 子音 體系에 대한 生成音韻論的 高찰’이나 ‘대구 어린이들 말에 있어서의 過去 時制’類의 순수 記述의 연구가 곧 우리 方言學의 발전을 의미하는 듯이 인식되는 일은 本人으로서의 이해키 어렵다.

기술적 연구와 비교 연구가 相補的이고 기술적 연구의 결과가 비교 연구의 바탕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비교가 단편적인 사항의 비교여서는 안 되고 체계와 체계와의 비교여야 한다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각 개별 方言의 기술적 분석은 方言 연구에 있어 不可缺한 先要 作業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것은 비교를 전제하는, 비교에 이용될 수 있는 분석 일 때 참이다.

本人은 이제 우리 方言學이 ‘비교’라는 본연의 방향으로 돌아가야 할 시기에 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자주 한다. 이르기 위해서는 이 방면의 전문가, 方言 연구를 부업으로서가 아니라 專業으로 할 일꾼들이 나와 주어야 할 것이다. 몇 사람이나 선뜻 나서 줄지 그것이 의문이다. 비교 연구는 기술적 연구보다 훨씬 여러 現地를 다녀야 한다. 그만큼 많은 시간과 정력을 現地에 쏟아야 한다. 이것이 그동안 비교 연구를 어렵게 한 요인이기도 했던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이 또 앞으로도 젊은 학도들로 하여금 이 방면으로 뛰어들기 어렵게 할 지도 모른다. 그리하여 한 地點(한 地域의 몇 地點이 아니라)만을 택하여 거기에 새 言語理論을 적용시키는 것이 훨씬 실질적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르기만 하여서는 우리 方言 연구가 결코 본궤도에 올라설 수 없으리라는 것이 本人의 생각이다. 諸 言語現象의 정밀한 地理的 分포를 밝혀내고, 그로써 크고 작은 方言 境界를 찾아 내고, 그 경계들이 무엇에 기인하며 무엇을 의미할 수 있는지 등을 캐는 일들이 方言學徒들이 해야 할 본연의 과제들이라고 本人은 생각한다.

5. 方言 分化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그 分化와 관련을 가지는 言語外的인 여러 현상에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게 된다. 言語 分化는 地理적인 分離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어떤 언어내적인 기제만으로 설명되지도 않는다. 小倉進平은 이 점에 관심이 컸던 편이었던 것 같다. 調查 地點을 선정할 때 앞 시대의 행정구역까지 고려하였다는가, 어떤 지역의 方言 分化를 그 지역의 經濟圈과 관련시켜 설명한 것 등이 그러한 예다. 그러던 것이 우리 方言 研究가 記述的인 입장으로 기울어지면서 方言을, 그것이 속해 있는 보다 넓은 세계와의 관련 하에서 파악하려는 태도는 오히려 크게 감소되어 갔던 것 같다. 言語는 분명 人間活動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方言의 分化를 人間과 똑 떼어 마치 言語 자체가 살아 움직이는 듯이 파악하려 했던 것이 這間의 경향이 아니었던가 한다.

方言學者가 言語를 이 ‘넓은 세계’와의 관련없이 독립적으로 다루게 되면 이야기할 수 있는 범위가 그만큼 좁아지고, 또 많은 부분을 밝히지 못한 채로, 또는 불투명하게 남겨 놓을 수밖에 없음을 看過해서는 안된다. 함경도 방언에 있는 경상도 방언의 요소를 어느 시기의 주민 이동, 즉 그러한 역사적 사실과 관련시킴으로써 바로 해명되는 일을 한 實例로 들 수 있다. 또한 ‘안방, 마루’와 같은 이름을 각 지역의 가옥 구조를 알고서야 바로 셀 수 있는 것을 實例로 들 수도 있다(李翊燮 1976). ‘식해’라는 음식의 이름도 각 지역의 이 반찬의 요리법을 알아야 비로소 조사될 수 있고, ‘호미씻이’와 같은 행사는 또 그 지역의 풍속을 알고서야 얻어질 수 있는 이름인 것이다.

왜 地理적으로 더 인접되어 있는 지역의 言語가 더 먼 지역의 言語보다 言語的으로는 더

疏遠한가. 그 지역의 사회구조의 특성, 거기서 비롯되는 각 지역들 간의 상호 접촉의 빈도, 그로 인한 經濟圈 通婚圈의 차이, 또는 그 지역의 文化類型的 차이 등등 언어외적인 현상을 고려함으로써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는 일의 實例는 이제 꽤 알려질 만큼 알려지기도 하였다.

言語 현상과 言語外的 현상 사이의 긴밀한 관계에 대한 究明은 方言 현상의 특성을 바로 파악하는 길이기도 하지만 方言學으로 하여금 인류학이나 사회학에 직접 공헌하는 학문이 되게도 하는 길일 것이다. 넓은 세계로 시야를 확대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아울러 제안해 두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金英培. 1977. 平安方言의 音韻體系 研究. 서울: 東國大 韓國學研究所.
- 金永松. 1963. 慶南方言의 音韻. 釜山大 國語國文學誌 4.
- 金永泰. 1975. 慶尙南道 方言 研究. 서울: 進明出版社.
- 金完鎭. 1975. 全羅北道 方言音韻論의 研究方向 設定을 爲하여. 全北大 어학 2.
- 金亨奎. 1964. 慶尙南道 方言 研究. 서울大 論文集 10.
- 徐州烈. 1964. 全南方言과 慶南方言의 等語線 研究. 朝大文學 4.
- 李基文. 1972. 한국의 國語學. 東亞文化研究所 編 韓國學 所收.
- . 李翊燮·李秉根. 1977. 國語學論文選(6)—方言研究一. 서울: 民衆書館.
- 李基白. 1969. 慶尙北道の 方言區劃. 啓明大 東西文化 3.
- 李秉根. 1973. 東海岸 方言의 二重母音에 대하여. 震檀學報 36.
- 李崇寧. 1957. 濟州島 方言의 形態論的 研究. 東方學志 3.
- 李翊燮. 1970. 全羅北道 東北部 地域의 言語分化. 語學研究 6: 1.
- . 1976. 韓國 漁村言語의 社會言語學的 考察. 震檀學報 42.
- . 1979. 方言 資料의 수집 方法. 方言 1.
- 田光鉉. 1977. 南原 地域語의 基礎語彙 調查研究. 金教善先生 停年紀念論叢.
- 千時權. 1965. 慶北地方의 方言區劃. 語文學 13.
- 崔明玉. 1974. 慶南 三千浦 方言의 音韻論的 研究. 서울大 國語研究 32.
- McIntosh, A. 1961. An Introduction to a Survey of Scottish Dialects. Edinburgh.
- Ramsey, S.R. 1974. 咸鏡·慶尙 兩方言의 액센트 研究. 國語學 2.
- Van Riper, W.R. 1972. Shortening the long conversational dialect interview. In L.M. Davis, ed., Studies in Linguistics: In honor of Raven I. McDavid, Jr. The University of Alabama Press.
- Weinreich, U. 1954. Is a structural dialectology possible? Word 10.

ABSTRACT

A Proposal for Korean Dialectology

Iksop Lee

Dialectology involves the study of individual dialect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one and another. Many Korean dialectologists have, however, indulged in only describing and interpreting the linguistic characteristics of particular dialects. As a result, there have been very few linguistic geographers in Korea.

I would like to emphasize that full scale data must be collected with satisfactory and proper field work methods, and the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various linguistic items has to be investigated.

It can also be pointed out that a pure linguistic approach is bound to be too mechanical and to misinterpret some information. Dialects vary not only because of linguistic factors, but because of non-linguistic ones. Here we are confronted with the need for studying dialect in its wider setting.

151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국문과

(접수 : 1978. 12. 10)